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종합토론 발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

삶과 세상에 바치는 글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1장. 삶의 부서짐, 그리고 부서짐의 두려움

- 분노, 좌절, 불안, 우울 등의 고통의 정서들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한국사회는 사방에 지뢰가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우연한 상황에 접속이 되면 폭발해 버릴 것 같은 불안, 분노, 우울, 슬픔, 의문, 불확실의 정서가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나도 별 탈 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자신도 모르는 내면에 숨어 있는 이런 감정이 건드려져 주책없이 공적 장소, 사적 장소 관계없이 눈물이 나오는 때가 아주 종종 있다. 약해지는 것인가. 건강해지는 것인가.

한국사회는 빈번히 커다란 위기를 겪어왔지만 코로나의 습격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격리시켜 버렸다. 앞일을 모르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은 크게 다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경험한 고통의 흔적이 삶 속에 뚜렷하게 남겨질 것이다. 지금도 그 표징을 볼 수 있다. 다들 살기가 어렵지만, 총체적인 재해는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그럭저럭 버텨 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거리로 나오지도 못하여 자신들의 고통을 공유하고 저항하는 기회도 제한되었다. 다양한 복지기관의 구호활동의 손길과 발걸음도 차단되었다. 청년층에서는 자발, 비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탈노동과 더불어 탈결혼, 탈가족 현상도 커지고 있다. 남들처럼 직장을 갖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아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한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는 미안함 때문에 더 위축되고, 부모도 자식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내려 놓지 못한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자괴감에 빠진다.

세상은 더욱 낯설고 멀어졌다. 내가 안전하게 속하는 세상이 언제 올지, 어디인지 헛갈린다. 각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은 오프라인에서 금방 사라진다. 세상이 그냥 허망한 꿈과 같다. 자신도 삶의 의미도 낯설어진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에 자유롭지만 오히려 무중력의 사슬에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다. 자신의 삶의 의미도, 세상에 대한 관심도 멀어져가면서 타인들의 고통에 무감각 해진다. 타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살 만

한 세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확신하지 못한 채 근근히 버티면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직업 상 세상과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나 또한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삶의 무의미함에 한 동안 빠져 있었다. 특권화된 노동 지위를 확보한 소수가 취약한 환경에 처한 타인들의 고통과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하였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휴대폰, 폭풍독서, TV, 집에 박혀 있다가 문득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 있었다. 부서지는 것은 세상과 나의 환상이다. 삶의 기본과 유한성과 불안을 애써 피하게 하였던 사회적 장치들의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가면, 빈말, 허례로 감추려 했던 부서짐, 불안을 회피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루 하루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살아가는 데 세상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다잡으면서,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하면서 적당히 자신을 달래고 어쨌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¹

부서짐, 상실, 고통, 불안은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겠지만 지금의 시대를 상징한다. 나처럼 적당히 아파하고,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다가, 다시 고집어 올리는 안전한 내면 보기를 택하는 사람도 있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순간적인 쾌락과 치유 수단에 집착하고 중독되면서 더욱 환각에 빠져 자신을 파괴하는 파국적인 삶도 있다. 확실성과 안전을 꿈꾸고 믿으며, 불안과 부서짐 곁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삶도 있다. 뭔가 이상하고 뭔가 공허하지만 그리고 이런 자기고백에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결국 현실 유지에 손을 드는 삶도 많다. 선하게 웃지만 자신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자각하고 싶지도 않은 삶도 많다.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기만하고 멀미를 느낀다.

삶의 부서짐은 분명 고통이지만,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두렵지만 부서짐을 은폐하지 않고 무엇이 부서지는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과 어떻게 다시 소통해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면 다시 삶은 생기를 얻고 세상과 춤출 수 있을까.

¹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숨을 끊었다. 왜 목숨을 끊었을까. 성추행 스캔들이 자신을 부서지게 했을까. 부서짐이 두려웠을까. 삶에 새겨진 공과 과를 세상이 심판하기는 어렵다. 인생에는 공과 과가 영커 있다. 그리고 공으로 과를 묻어버리고 망각하기를 원한다. 자신이 범한 커다란 과오, 그로 인한 가해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 선과 공을 이용하는 게 자기보존적 습성이다. 원망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은 세상, 공으로 과를 덮고, 과를 기억하고 고백하지 않은 기만 때문이 아닐까.

- 저출산은 발전주의 가족주의 사회체제의 모순에서 파생된 삶의 고통의 흔적이다.

고용대란, 높은 지가, 과도한 교육비용, 저출산, 비혼 현상이 마치 어느 특정 정권의 책임인 것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가는 여론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은 어느 정권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삶의 고통을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건강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현명하다. 삶의 위기가 구조적이고 체제내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회의 핵심 원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면서도 그로 인해 오히려 다수의 삶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체제의 모순적 현상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해를 만드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이 독점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체제는 발전과 가족을 욕망하면서 작동했다. 근대 한국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는 일념으로 구성된 공동체였다. 그러나 점차 소수만이 발전의 혜택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경제, 조직, 생활세계 전반이 편제되었다. 모두가 발전, 성공, 그리고 가족을 꿈꾸지만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목표는 중심의 힘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욕망과 현실적 기회 사이의 갭이 커지고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삶의 욕망과 기회가 불일치하는 조건에서 계층화와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고 위계화 되면서 괜찮은 노동이 특권화 되고 있다. 20대 남성들의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은 노동시장의 계층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근대의 어느 시기 동안 남성 일반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었던 노동권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 대한 박탈감도 포함한다. 성장과 성별화 논리를 통해 생산과 재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체제논리의 이상은 노동시장의 계층화로 깨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을 재생산하는 주체로 여성을 호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젠더 역할은 이런 거라는 사회적 틀과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수많은 모순적 현실에 대해 의문이 커진다. 이렇게 심화되는 계층화와 노동, 젠더,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규범과 생활세계의 모순을 경험하면서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이 당연히 여겼던 습속에 대해, 세상에 대해, 노동, 가족, 결혼, 재생산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쌓이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서지고 있는가. 물질적인 충족/결핍의 담론들에 길들여진 우리의 즉각적인 대답은 역시 물질적인 것의 상실일 수 있다. 성공, 발전, 행복한 가족에 대한 꿈이 무너진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소득생활이 불안정하고, 교육비용이 크고, 주택 값이 비싸고, 누군가는 엄청난 풍요와 완전한 삶을 누리는데, 나와 내 가족은 왜 이리 찌질하게 사는 것인지. 현란하게 빛나는 물질의 이기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성공과 행복의 꿈이 부서진다. 남은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능력, 행복이 나에게서는 결핍되었다. 과거에는 가졌는데 지금은 상실하였다고 인식할 수 있다.

공정성이 부서지고 있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능

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삶의 기회가 봉쇄된다는 것이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생활을 마쳤다 해도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기약 없는 비정규직이나 취업 재수생이 되는 것이 두렵다. 수면이 늘 부족할 정도로 공부와 씨름하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 고급의 인턴과 자유투자와 창의를 지원하는 학습환경에서 공부를 즐기며 대입을 준비하는데 불공정함을 느낀다. 이미 상당히 기울어진 장에서 자유투자로 경쟁하라는 외침은 이미 누리고 있는 자가 어떤 양심의 죄책감이나 사회적 수치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자의 삶의 조건을 박탈하게 한다. 한 줄 세우기 생존 게임의 장은 시작, 과정, 결과가 이미 불평등하게 정해진 것이 드러나고 있다. 기회 평등의 관념이 무너지고 있다.

물질적인 충족과 결핍으로 프레임된 세상에 내던져지면서 충족에 성공한 이와 실패한 이 모두가 겪는 부서짐과 불안도 있다. 최고의 성적을 얻어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왔는데도 동료 친구들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선생으로부터 성취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절망하고, 최고, 일류를 꿈꾸면서 도달한 위치에서 인생 허망함에 압도되고, 능력은 물론 남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행복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성공, 부, 권력, 힘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던져지면서 세상이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가치이자 삶의 목표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쫓아가는 자아가 뭔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다. 세상은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파악 짜여진 스케줄에 묶여 학교, 학원, 직장, 집을 돌고, 다시 반복하면서 불안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세상과 즐기고 도전하고 어우를 수 있는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한다. 차라리 무감각해지는 게 낫다. 이런 반복된 불안, 두려움, 무감각 속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 책임, 의미들이 상실되고 망각된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한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넘친다. 부, 출세, 연대, 자아실현, 신뢰, 박애, 평등, 절제, 겸손, 도전, 등.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나쁘지 않다. 훌륭한 사람들의 일생을 기억하면서, 영웅들의 삶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로 삼기도 한다. 자신들도 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의 방향을 성급히 훈계하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조언을 한다. 그런데 삶의 가치는 삶에서 추구한 것, 얻은 것, 목적 자체가 아닐 수 있다.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패기, 용기, 헝그리 정신 만도 아니다. 이런 가치를 배제하지 않지만 삶의 가치란 그 보다 훨씬 복잡하고 종합적인 관계의 경험이다.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고 좋은 마음을 갖는다 해도 관계의 깊이가 알다면 공허함이 클 수 있다. 삶의 가치는 어느 특정 세대, 계급, 젠더, 사회적 집단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감동을 전하는 삶의 이야기는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껴안은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안내할 진정한 관계

수행을 간과했던 것이 물질과 의미와 가치의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이유일 수 있다. 계속 높으로 빠지고 있는 삶에 바르게 살라는 훈계가 먹힐 리 없다. 일그러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의 손길이 필요하다.

2장. 새로운 세상, 존재, 시간

- 미래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제도와 의미 체계는 지금 사회체제의 모순과 변화되는 힘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과 나의 관계는 매우 상호적이다.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인식한다. 세상 밖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 습관, 행동의 많은 것은 기억된 것이고, 기억에는 수많은 세상의 흔적과 경험이 내장된다. 세상 밖에 있는 나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상은 나의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나의 관점에서 인식된다. 나의 관점 밖의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세상과 나는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인식한다. 하이데거는 세상과 존재의 관계에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내장됨을 통찰하였다². 난해하지만 존재와 세상은 결국 존재가 의미 부여한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의 사유를 이해한다. 나이에 따라 시간 인식이 다르고,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삶의 경험에 따라, 그리고 사회제도와 의미 체계에 따라 시간 인식이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계에 맞춰 순식간에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듯 살아간다. 시간은 나의 밖에 무한대로 확장된 것처럼 느끼고,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기라고 인식한다.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서 과거는 사라지는 것처럼 인식한다. 그러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베리는 우리가 시간에 갖고 있는 상식이 물리 현상 뿐 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경험에서도 착오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³. 인간 존재의 어떤 고유한 특성도 물리, 자연 현상이다. 물리, 자연의 하나 하나 생명도 고유성과 관계성을 지닌다. 인간 밖에 있는 어떤 표준화된 보편적인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은 움직이는 입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적이고 독특하게 나타난다. 입자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에는 과거 흔적의 기억과 창의적인 힘이 결합된다. 우주에 신비하게 탄생한 인간은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다른 물리, 자연과 더불어 그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 세상, 시간을 인식한다.

어떤 사회도 제도와 의미 체계는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유지를 목적에 둔다. 존재는 타자와

² 박찬국, 2013.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읽기, 세창

³ 카를로 로벨리 (이종원 옮김, 2019).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쌤앤파커스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삶이 바르고 참된지,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세상이 마련한 의미체계들과 경험을 조합하면서 세상과 삶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러나 늘 관념, 제도, 관계, 삶의 현실 사이에는 균열이 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미래사회는 지금과 많이 다르고 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달라진다고 말한다. 미래사회에서 노동력으로서 인간의 가치는 상당부분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예견하는 사람도 많다. 저출산은 새로운 시대의 삶의 조건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적응하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래 사회 인간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와 매체를 이용하여 광대한 세상과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정보와 상호작용의 복잡성은 개별성을 크게 하고, 개인을 표준적인 어떤 관념, 가치, 정향으로 통합하기 어렵게 한다. 복잡성이 커지는 시대, 오히려 출산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상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접근은 자칫 인간,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부정하는 유토피아적인 발상일 수 있다. 현재의 사회 체제에서는 과거의 흔적과 삶의 유산이 얹혀 있다. 새로운 환경은 과거의 모순과 유산을 덮어 버리기 보다는 과거의 힘과 융합하여 새롭게 탄생하여 어떤 면에서 더욱 강대한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인간이 만든 역사에서 얻는 교훈이다. 또한 모순과 제약이 많은 조건에서도 참된 삶의 가치를 인간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은 중요한 유산으로 기억된다. 어둠과 절망, 무의미, 파괴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류사회를 구원하였던 것은 새로운 주체의 등장에 의해서다. 새로운 주체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모순 구조 만은 아니다. 모순 구조에 억압되면서도, 모순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편협한 관념, 인종, 민족, 이방인의 경계를 넘은 사랑, 세상과 삶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 진심으로 관계를 수행하는 실천에 의해서다.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희망으로 인간과 세상은 지속된다.

세상의 제도와 의미체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것도 있고 우리의 삶과 함께 만들어진 것도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제도와 의미체계는 과거의 흔적과 유산이 공존하고, 미래의 희망과 선택도 포함한다. 한국사회로 이어진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은 완전히 분리되고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유산과 희망을 통해 결합된다. 우리의 유산에는 가부장적 종법질서, 민초들의 애환, 해방과 전쟁, 분단, 발전국가 이데올로기의 잔재, 젠더 갈등 등 수많은 회로애락과 모순이 담겨 있다. 신분적 지배와 고뇌의 삶에서 민들은 인생과 세상의 무상함과 의미를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상당한 통찰과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다. 구체제의 모순을 완전히 소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명의 힘을 과시하는 제국의 오만함에 짓밟혔지만 남의 정체성을 물리적인 힘으로 빼앗

는 것은 정의롭지 못함에 저항하고 정의로운 세상, 살 만한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희망으로 미래를 향했다. 해방, 전쟁, 분단의 정국에서 이념, 정치적 사회 갈등이 격하였는데 근대화과 경제부흥, 성공, 사회적 이동의 꿈은 사회 성원을 모처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같았다. 새롭게 부상한 발전주의 욕망과 오래된 가족주의 욕망이 서로 결합하여 삶의 언어가 되었다.

성공과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 세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인간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힘을 믿었다. 누구나 잘 살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멋있는 인생을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이런 의미들이 덧없이 지나가고 있다. 가부장제, 국가, 민족, 자본주의, 계급, 성별화 등의 언어는 삶의 내면의 불안을 은폐하고 억압을 보지 못하게 욕망하게 하였다. 지금의 청년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세상이 합리적으로 편제되기를 희망한다. 공동체적 윤리보다 개인의 권리를 더 우선시한다. 세상이 말하는 옳은 가치나 규범을 좇기보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좇고 이성의 힘을 믿는다. 친밀성과 관계도 좋지만, 합리적 선택이 더 우선시된다. 인간의 삶은 더욱 계산 가능하고 표준화되고, 예측되고, 통제될 수 있게 조직될 수 있고,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결핍된 것은 비인간에게서 충족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세상은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조직되고 물화 되었다. 거대 조직의 부분으로 인간활동이 조직되고 시간은 인간 내면에서 외적인 존재로 전환되어 무한히 확대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과거와 미래는 뭔가 다른 것 같으면서 닮아 있다.

미래사회는 지금의 모순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회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확실하고 거대한 힘도 아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아주 희미하게만 인식되는 것이 미래 사회다. 예측가능하고 계산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아무리 복잡해지고, 개별성이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불안과 위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저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가? 살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재생산을 포기하는 사회가 살 만한 사회인가? 아주 소수만이 살아 남아서 훨씬 완성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최근에 좀비 영화의 고전으로 평해지는 <새벽의 저주>를 보았는데, 영화를 소개하는 댓글이 신선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좀비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지옥이 받을 수 없어 좀비들이 세상을 배회하면서 산 자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이다. 기발한 발상이다. 산 자의 인구문제는 해결될지 모르나 죽은 자의 인구문제는 오히려 심화된다. 우리의 설화 속 귀신은 세상에서 풀지 못한 한 때문에 세상을 배회하면서 산 자를 괴롭혔는데, 이미 진행된 미래에는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지옥에 머물 수 없어 좀비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 살아남는다고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산 자는 죽은 자와도 연결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의미 체계는 발전주의, 가족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는 가치와 목표와 행동기준으로 짜져야 한다.

지금처럼 살기가 팍팍한 시대에 재생산보다 생존이 일차적인 인생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생존과 재생산의 조건은 다르지 않다. 코로나 이후 소수만 생존하고 다수가 낙오되고 좀비 같은 인간이 되는 사회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자아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살 만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재생산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체제의 모순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소수의 승자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습속을 정지해야 한다. 개인을 고립시키고 소통을 막는 장벽들을 허물 수 있도록 생활세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위기는 체제 조정을 유발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외환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커다란 체제 조정을 하였다. 고도성장과 문어발식 확대로 달려갔던 경제체계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노사정이 모여 끌어낸 체제전환의 방향은 유연화와 사회보장의 강화다. 노사정의 대타협으로 내린 처방은 궁극적으로는 성장을 통한 모두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고통이었다. 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생산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히 조정하는 대신, 국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정리해고와 유연화에 따른 불안을 완충하기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유연화의 영향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삶을 불안으로 내몰았다. 성장 지표는 어느 정도 안정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노동시장의 계층화, 분절화가 심화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임이 드러났다. 즐기고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일자리가 제한되고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이 양산되면서 교육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선언과는 달리 국가사회복지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면서 생존게임에서 이긴 자들을 위한 제도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⁴.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한국사회의 유연화 전략은 결과적으로 보면 소수만의 선택과 다수의 고통과 불안으로 귀결되었다. 대중들이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꿈은 추락하였다.

사회의 내적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 코로나의 충격이 덮쳤다. 이제는 탈성장의 문법과 대본을 마련할 때다. 성장, 확대, 유연화, 적자생존이 답이라는 신화를 버려야 한다. 세계 경제의 성장지표는

⁴ 복지국가 제도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효과에 대한 논문들 참조. 박경숙(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마이너스다⁵.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정도와 시민사회가 상생과 자유훈의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정도나 양상은 다르기에 지금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선택이 자본주의체제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비관론을 동의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 조건으로 받아들여 하는 것은 더 이상 적자생존과 성장이 아니라 공생과 절제의 미와 책임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유연화를 사회협약으로 내걸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협약을 선언해야 하는 때다.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경쟁과 충돌의 위험,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불평등, 개인들의 삶의 피폐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시민사회도 상생의 책임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한다.

- 인구 정책의 일차적인 관심은 삶이 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정부는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의 질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전의 국가 중심의 출산장려 관점에서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국가가 아무 거리낌 없이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는 많지 않다. 출산을 높이려고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국민을 출산의 도구처럼 인식하게 하는 방식보다 출산이 높아 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보호하는 스마트한 입장을 가진다. 한국사회도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삶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 정책의 거대한 이념,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 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중요하다. 실효성과 책임감 없이 여러 정책들을 맞보기 식으로 병렬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하나의 강력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태도도 위험한다. 삶의 조건인 생활세계의 노동, 복지, 교육, 돌봄, 친밀성, 연대의 종합적 회복을 지향한 정책 구상과 실행, 책임이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다양성은 위계적이고 지배-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공생하는 원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기업에선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일자리 감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 인구 구성이 줄어드는 가운데도 청년층의 취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⁶. 출산율이 감소하여 젊은 인구가 감소하면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갭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노동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으로 많은 비정규직 인구가 양산되었고, 청년의 실업문제가 컸다. 고용불안

⁵ 김미곤, 202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방향 (저출산 대응 인문사회 포럼,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발표문)

⁶ 남재량, 2020.6. 청년의 삶: 청년니트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 인문사회 포럼 발표문)

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비혼 현상을 더욱 심화한 측면도 있다. 한편 2000년대 아베 정권이 매우 공격적인 외교 경제정책을 펴면서 청년의 고용조건이 많이 개선된 기간도 존재한다⁷.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였겠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청년의 실업률이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서 구직기회가 넓어졌던 것이다⁸. 한편 한국에서는 청년인구의 감소와 퇴직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비경제활동시기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높다. 코로나 충격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된 영향도 크지만, 노동시장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기적 성과 위주로 노동시장이 위계화되고 분절화되었기 때문이다. 부문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이나 노동지위의 격차의 상당부분이 생산성의 결과에 기초한다는 진단도 있다. 그 생산성의 기준이 다른 삶의 가치와 조건을 모두 압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시쳇말로 왜 일을 하냐고 물으면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한다. 먹고 사는 삶의 기본은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생산성과 능력은 어떤 절대적이고 신성한 권력이 아니다. 노동시장 한 쪽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부문별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한 조건들에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노동력 활용의 주된 원천이며, 남녀 모두 중소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고용능력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커다란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일자리의 지역적 불균형도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의 인구 유출의 제일 요인이 일자리라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야 한다. 부문별 노동력 수급 불일치, 중소기업의 생존력, 지역의 일자리 문제, 모두 노동의 가치는 생산, 이윤 남기는 것만 아니라 것을 전제하는 데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일과 여가 시간에 대한 태도는 사회마다 다르다. 어떤 조사 발표가 떠오르는데 프랑스인은 노동보다 휴가를 더 중시하고 일본인은 노동을 중시한다고 한다⁹. 짧은 인생을 노고로 보내기 보다 여유롭게 즐기는 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도 있다. 한번 태어나는 인생, 뭔가를 성취하는데 몰두해야 한다고 여기는 삶도 있다. 재산, 권력,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도 있고, 참된 자아를 찾

⁷ 키즈가와 토루, 하자마 료타로 편. 2019. 分断社会と若者の今. 오사카대학출판

⁸ H. Tarohmaru, 2015, "Labor Markets, Gender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East Asia: An Introduction," H. Tarohmaru (ed.), Labor Markets, Gender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East Asia: A Global Perspective, Leiden: Brill, pp. 1-31.

⁹ . 국내에도 여가와 노동 생활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이주연, 김혜숙, 신희천, 최진아(2011)은 노동을 위해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경험한 강도 높은 노동문화와 여가 생활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잘 정리한다.

는 것을 중시하는 삶도 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노동을 삶의 일차적인 목표나 가치로 두지 않았고 오히려 천한 출신의 업이라 생각했다. 지금의 우리처럼 생산, 성장, 이윤, 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특정한 사회체제의 자기장 속에서 패턴화된 것이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 아마도 우리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더 많은 시간을 여가나 가정생활에 보내고, 일과 가정생활, 교육, 자신의 취미 생활에 균형을 이루는 삶을 선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순간에도 생계를 위해, 아니면 성공한 삶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위험한 노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비정규직, 알바, 플랫폼,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노동자는 노동에서 뿐 만 아니라 재교육, 의료, 복지, 주거, 친밀성 등 복합적인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덫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마련되어야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가 절실하다. 소외되고 위험한 노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소득을 넘어선 제도 구상이 필요하다. 불안정 노동이 심화되고, 노동 시장이 계층화되는 상황을 유보한 채 기본소득 하나를 통해 보편적 안전망을 추구하는 시도는 유연화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된 사회보장제도 카드의 영향보다 더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남는다. 당장에는 노동시장 내부의 이해 대립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불평등의 구조를 더욱 공고화하고 경제, 문화, 사회적 성원권을 차별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기회의 구조가 상당히 왜곡된 상태에서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당연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 튀기게 경쟁한 결과로 얻어낸 능력, 생산성, 그에 따른 보상의 차이를 국가가 형평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분개하는 정서를 이기적이라고 무시해서도 안된다. 어쩔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이윤추구가 절대적이며 정당성을 갖는가?

고등교육 인구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지만 고등교육 인력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공급은 제한되면서 부문별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진단도 나온다¹⁰. 그러나 교육획득이 사회이동의 가장 확실하고 공정한 경쟁 룰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헌신하면서 고등교육인구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국가와 사회 전체가 성장과 사회 이동을 최고의 삶의 가치에 올려 놓고서 그리고 엄연히 교육수준별 기회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어떤 이는 처지에 따라 욕심을 줄이고 대학 가지 말고 일찍 기술을 배워 자리를 잡으라고 권하는 것은 기회 이동의 욕구를 부정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속 보이는 이기심의 발로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일자리 기회를 위한 교육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유치원에서부터 영재학교, 특목고를 경유하여 유수대학에 진학하는 교육 코스가 개발되고 있다. 교육 성과는 더 이상 아니 어쩔 이전

¹⁰ 남재량, 안태현, 안종범, 전영준, 2009. 근로빈곤 대책연구 1. 한국노동연구원

에도 학생이 노력한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지위 이동을 꿈꿔왔던 한국인들의 마음이 심하게 동요하고 생애 초기부터 삶의 기회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냉소한다. 교육자로서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불합리한 평가와 줄 세우기에서 재기 발랄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는 것이다. 김희삼 교수는 고등학교 이미지에 대한 한중일미 대학생 인식에서 한국 학생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사활을 건 전장'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¹¹. 입시경쟁의 환경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신뢰, 자기주도적 태도를 함양하기는 어렵다. 초등, 중학, 고등, 대학교가 본연의 교육 기능을 찾아야 한다. 교육 제도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도록 작동되어서는 안된다. 우수 대학의 수도권 초집중 현상은 교육 생태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각자의 이해 지키기만 고집하지 말고, 시민사회, 국가, 학교, 교직원, 학생이 공동의 교육 가치를 찾아야 한다.

저출산이 삶의 고통의 흔적 이듯이 지역의 인구불균형 현상도 생활환경의 위기와 밀접히 연관된 징후이다. 해마다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시장이 닫히고, 빈집이 늘어나는 풍경이 농어촌 만이 아니라 중소도시, 대도시내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적 특성을 띠는 것은 성장, 발전 중심으로 삶의 환경이 재편되면서 인구가 성장, 발전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심하게 쏠렸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촌향도 이동이 지속된 결과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고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인구 유출을 촉발한 요인은 일자리, 소득기회와 교육 환경의 불균형이 일차적이다. 새로운 인구가 태어나고 유입되도록 지방정부는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유의한 효과를 얻은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은 것 같다. 최근 지역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이 속에서도 몇 개의 시군구 지역은 새로운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유치의 호재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¹². 대도시내에도 인구유입과 재생산이 활발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나뉘어진다. 지방의 대부분의 중소도시와 대부분의 농어촌 일반과 비슷하게 낮은 출생률과 높은 고령화 추이가 지속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령화된 지역이지만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인구 동태에서 활력이 지속되는 지역과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의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과 성장의 관점을 모든 지역에 확장하는 접근은 오히려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통한 지역균형은 허상일 수 있다. 국토를 난개발과 투기로 몰아넣으면 지방은 다 사라질 지 모른다.

¹¹ 김희삼, "한국사회의 재생산 위기에 관한 10가지 이야기,"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2020/7/22

¹² 김이선, 김재인, 김반석, 박경숙, 2019. "동태적 연령구조 모형에 기초한 지역 유형화와 지역의 인구, 경제, 교육, 복지 환경의 상호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 42/2

인문포럼에서 김정섭 박사는 인구가 사라지고 있는 농촌을 생생하게 소개한다.¹³ 서울의 어느 한 구 만한 크기의 면에 인구가 1-2천 여명이 살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마을(행정리)에 한 두 명 있다. 버스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당번제로 주민이 한 사람씩 매일 버스를 타고 읍내를 다녀오고, 상점과 식당이 사라져 생필품을 구하지 못한다. 배달시킬 중국집도 없다. 아이들은 같이 놀 친구도 없고, 학습을 보충할 학원도 없이, 혼자만의 공간에 방치되어 있다. 어르신들이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인구가 사라지는 모습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인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었다. 인구가 없기에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재화라 하더라도 유통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비용대비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공적 자원의 활용 또한 인구과소 지역에서는 딜레마에 빠진다. 사회가 해체된다는 것은 삶의 조건이 무너지는 과정이다. 농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시는 남의 일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김정섭 박사는 침몰하고 배 안에서 뱃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뱃고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결국 뱃머리에 있는 이들도 모두 침몰한다.

그러나 폐허가 된 곳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새롭게 삶의 전략들을 창조하고 있다는 희망도 들려준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일구어 생산을 하는 이유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돌봄과 교육은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책임을 진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자발적인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과 인구의 위기를 개발과 성장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삶의 재생산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보다 다양한 지역 재생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돌봄을 주고 받고, 자연과 소통하고, 마음 놓고 안전하게 놀고 활보하고, 배우고, 노동하고, 생활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가 창조될 수 있다.

심화되는 계층, 지역, 교육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양극화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노력,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다른 한 쪽에서는 출발부터 왜곡된 기회의 차별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맞짱을 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동의 기회가 막히는 사회는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평등한 기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가 의문이 남는다. 노동, 교육, 지역 불균형에 대한 대립된 시각,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의 갈등의 간극은 성공, 발전의 기회를 누가 갖는가에 있어서 시선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인 이해를 지키는데 급급하지 않고 사회 공동의 이해를

¹³ 김정섭, “저출생 고령화 시대, 저밀도 농촌 지역사회의 경험과 선취에 관하여,”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2020/7/22

지키기 위해 상생, 협력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불편한 진실을 꺼내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다. 발전을 욕망하는 세상에 대해 그게 환상이라고 내려 놓으라고 외쳐도 코웃음만 친다. 자본주의 사회를 매우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관념이 다른 아닌 무한한 발전에 대한 신념이다. 이것이 근대적 인구 통치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다. 계속 생산하라, 이윤을 추구하라, 노동하라,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라. 그런데 한국사회의 인구 통치의 또 다른 기둥이 있다. 가부장제적 사회조직과 가족을 재생산한 부계혈통주의 관념이다. 친밀성과 재생산은 가족의 언어로 설명된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조건을 잘 따져서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당연하고, 자녀 양육은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의 결과다. 결혼을 하는 순간 둘 만의 가족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매개한 넓은 가족/친족 관계에 접속된다. 여성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것은 결혼은 이전의 삶에서 단절되는 가족 중심 삶의 시작이다. 그 안에서 나름 재생산과 돌봄의 가치도 새롭게 발견하지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힘든 차별적인 언어들로 재생산과 가족 역할이 강제된다. 다른 한편 가족은 냉혹한 노동 생활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의지처로 미화된다. 또한 서로가 일체가 되어 사회적 이동을 약속하는 욕망 공동체이기도 하다. 가족관계에서 헌신과 이기주의와 서운함, 모순, 갈등을 민 낮으로 경험한다. 세대간 가치, 이념적 갈등도 심하지만 가족의 눈으로 다른 세대의 고충을 공감한다. 이렇게 가족은 한국인의 내적 모순을 응집하면서도 욕망하는 강력한 심적 동기이자 사회구조의 병리적 현상으로 논의가 된 주제다. 상처와 갈등 덩어리면서도 내려 놓지 못하는 욕망과 고향과 연대의 근거다.

한국인의 복잡다기한 가족주의 관념의 기층에는 부계 혈통주의가 자리잡고 있다¹⁴. 가부장적 가족 관념의 가장 가까운 과거로 조선후기 사회의 유산을 많이 주목해왔다. 조선후기 사회는 국가의 부세정책이 경직화되고, 토지가 소수에 집중되어 일반 평민들은 궁핍화되고, 사회적 신분의 경계가 형해화 되는 가운데, 부계 중심 가족제도와 장자단독상속 관념이 일반화된 복잡한 사회 변동의 특성을 가진다.¹⁵

¹⁴ 박경숙, 2017.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생애사에 배태된 근대가족의 기원과 종언의 흔적. 아시아연구.

¹⁵ 이정수, 김희호, 2010. "조선후기 양반층의 토지소유규모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54; 장경준, 2017, "18-19세기 노비 호구수 변화 양상에 대한 재검토 - 호적대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역사민속학 52; 김건태, 2004,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자본주의의 지배체제가 개인을 발전을 욕망하는 행위자로 주체화하였다면, 조선사회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지배체제는 가족을 욕망하도록 주체화하였다. 궁핍과 신분차별에서 평민들은 양반들 네처럼 문서와 섬세한 예로 준비된 혼인을 하기를 욕망하고, 부, 조부, 증고조부, 외조부의 조상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가계를 굳건하게 이어갈 자손을 욕망하였다. 신분제에 기반한 호적통치가 휴지조각처럼 사람들의 인식에서 희미해져 가는데, 일제가 차별의 언어로 조선인을 호명하기 위해 호적이 변형되어 회생되었다. 동시에 일제에 저항하는 전통과 민족의 언어로 다시 소환하면서 가부장제적 가족 관념은 근대국가 성원권의 원리이자 근대 가족의 정상으로 자리잡는다.¹⁶ 그리고 여성은 가부장제적 부계혈통을 재생산하는 조력자로 호명되었다. 여성들의 모순과 억압적인 위치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부계적 가부장제는 부부 중심, 성별화 논리의 언어로 그 억압을 은폐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서 계층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가부장제적 질서도 타격을 받지만, 생존의 욕구는 더 치열해졌다. 지나친 교육열과 경쟁을 부추긴 가족주의의 팽배는 발전주의와 성별화 지배논리가 결합되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발전주의, 가족주의, 성별화 논리 사이에 균열이 심화되기에 이른다. 발전, 부계가족, 성별화 언어가 세대, 젠더, 계층의 복잡한 교차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¹⁷ 부계가족, 부부가족, 정상가족의 실체가 모호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싱글, 다문화, 한부모가족, 이혼가족은 비정상의 범주로 바라본다. 과거보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 밖의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중심으로 만든 가족내 여성의 틀로 여성을 본다. 정상 가족 규범이 유독 여성에게는 더욱 강력하여 가족 밖의 여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풀지 못하고 내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가족, 재생산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상황으로

¹⁶ 인구통계의 기반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표나 범주들은 국가의 신분등록체계에 따라 정의된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혈통과 가족을 단위로 민을 통치한 호적/호구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근대 인구통계에서도 호적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국적을 공시, 증명하였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된다. 출생, 출산, 혼인, 사망 등의 생명사건에 대한 신고양식이 가족관계 등록안에 통합되어 인구의 법적인 기준, 등록, 신고내용이 가족법에 규정되는 특징을 가진다(박경숙, 2017, 인구학방법: 55-57).

¹⁷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결혼, 가족,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학생들은 출산은 매우 부담스런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담의 원인에 대해서는 젠더 차이가 보였다. 남학생은 청년들의 고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는 반면, 여학생은 경제 요인이외에도 가족역할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지하였다. 젠더에 대한 태도는 세대간 차이가 크고, 나이가 젊을수록 성인지감수성이 크지만, 청년 내부에서도 성별화된 인식의 영향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자각과 저항이 커다란 사회변동을 이끌고 있다.

귀결되었다. 재생산의 위기는 차별을 이기적 연대로 봉합한 가족주의에서 잉태된 부분이 매우 크다. 이제까지 재생산은 부계혈통 가족을 재생산하고, 여성의 일로 당연하게 설명되었는데, 이 언어에서 더 이상 재생산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김영미 교수는 한국 사회 뿐 아니라 비교 사회적 차원에서도 젠더 갈등이 저출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분석하였다¹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출산을 유도한 것이 아니다.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젠더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크게 인지하는 곳에서 출산율이 낮다. 이는 여성의 몸이 가부장적 사회의 재생산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훨씬 젠더 평등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젠더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계적 혈통주의의 뿌리가 근절되어야 한다. 노동시장과 사회활동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정체성과 성원권을 부계적 가족이념에 결정하는 체제원리가 근절되어야 한다. 전혀 삶의 현실과 맞지 않고, 사람들의 소망과도 동떨어진, 사문화되었으면서 다양한 친밀성을 부정하고 정상가족 프레임으로 성원권을 차별하는 가족의 언어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생활에서 다시 써야 한다.

인문사회 포럼에서 배은경 교수는 재생산이란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¹⁹ 이미 엄마 배속에서부터, 아이는 엄마와 교감하고 안전하게 태어난 뒤에도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 돌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다.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 어디 아이 뿐이겠는가. 홀로 사는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돌봄의 손길이 더욱 아쉬워지고 있다. 안전에 취약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특별히 세심하게 돌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돌봄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관계다. 의미 있는 삶의 핵심은 진실된 관계 수행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진실한 관계 수행 속에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삶의 에너지를 찾는다. 우리는 돌봄을 너무나 당연하게 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돌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돌봄은 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생산성, 효율,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남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본인에게 해가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산 뉘은 고스란히 스스로에게 돌아온다. 더 무서운 것은 진정한 소통의 기회가 점점 계층화되는 것이다.

¹⁸ 김영미, 2016.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경제와 사회 41.

¹⁹ 배은경, 2010.7. "저출생과 젠더관계의 변화: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향하여", 저출산 대응 인문사회 포럼 발표문

돌봄이 사라지는 것은 돌봄을 여성의 몫으로 당연시한 제도와 인식의 영향도 크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재생산, 돌봄은 여성의 정체성으로 해석하였다. 모두가 필요로 하고 구비해야 하는 자질을 여성의 무임노동으로 당연시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 더 이상 여성이 희생적 돌봄을 수행하지 않기로 작정한 상황에서 돌봄이 사라지고 있다. 돌봄은 단순히 필요한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관계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선 아이 돌봄이든, 노인 돌봄이든, 사랑하는 연인사이든, 돌봄의 정서에는 부담이라는 정서가 압도한다. 보상에 비해 책임이 과하다는 느낌, 가족관계에서 특히 축적된 원망과 소통의 부재 속에서 돌봄 관계를 부담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²⁰. 가부장제적 사회재편, 발전주의와 불평등한 구조는 인간을 고립시키고 자율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돌봄의 가치를 사회정의에서 주변화시켰다. 타인에 대한 환대, 배려, 그리고 자기 성장의 토대인 돌봄의 인식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자기 성장과 소통의 관계로서 돌봄은 사회정의의 핵심이 된다. 근대의 종언이 파국적인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삶의 중심, 사회정의의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3장. 삶의 대본을 새롭게 쓰자.

최근에 노인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를 물어본 적이 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 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게 무엇인가. 점잖은 대답을 기대했는데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돈과 건강이란다. 경제생활이 불안하니 사회활동도 제약되고, 건강이 악화되니 경제생활도 어렵다. 후회, 원망, 불안, 두려움, 섬뜩함 등 노년의 경험에도 세계와 존재가 균열된 흔적이 크다. 돈,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관계를 지탱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과 건강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어떤 진실성을 가지는지 의문이 남는다. 죽음을 가깝게 인식하는 노인은 무상한 삶과 세상을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섬뜩하다고 한다. 허무하지만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야 겠다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타인을 대하려고 한다.

옛날에 마귀에 걸린 두 명이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오. 우리를 차라리 저 돼지에게 집어 넣어주시오 하고 그에게 고백한다. 마귀는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마태오 8, 28-34).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은 아픔과 기만을 고백하였고 진실한 사랑으로 구원되었다. 그는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였다. 부서짐과 가난한 영혼으로 아파하고, 그 아픔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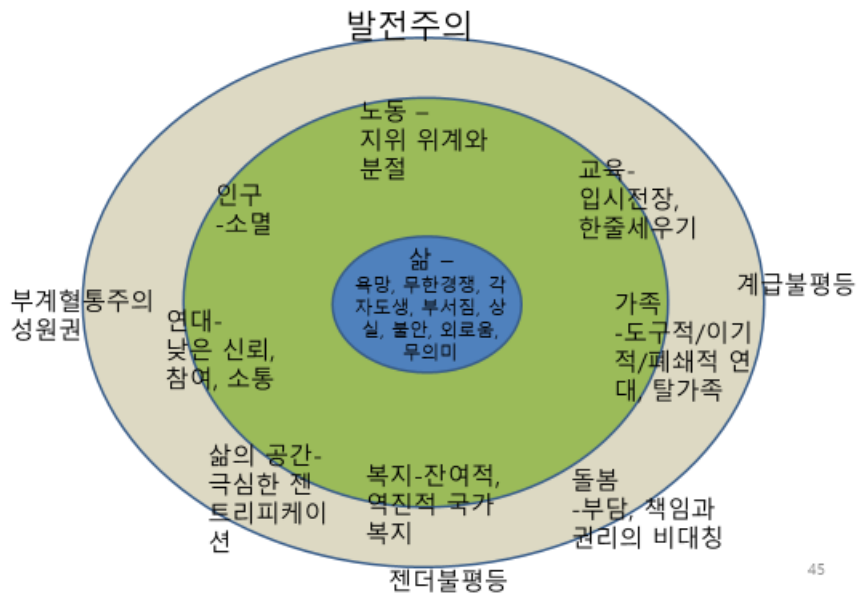
²⁰ Park, Keong-Suk, 2020.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Family Care in South Korea: Conflicts and Reflection, Japanese Journal of Family Sociology.

리기 위해 스스로를 타인을 속이는 자신을 용서하였다. 인문학적 통찰 포럼에 최종렬 교수는 불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과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산장려의 대본도, 오래된 젠더의 대본도, 근대의 대본도, 국가, 민족, 가족, 성공, 자기계발의 대본도 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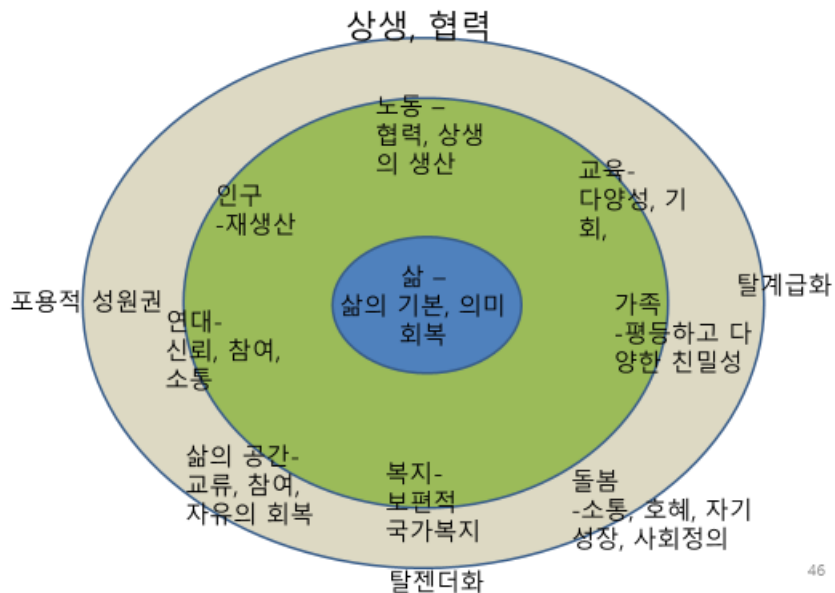
흩어져 있지만 새로운 삶의 의미들이 생성되고 있다. 귀농 귀촌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청년, 장년층이 있다.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모두가 대기업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생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²¹. 극단으로 서로를 증오하는 듯하면서도 심각한 사회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뭉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존재한다. 많은 이가 떠난 공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 규칙보다 마음으로 경계를 넘어 관계를 수행하는 삶이 있다. 삶을 객관화하고 물화하는 언어에는 무심하지만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이야기에는 눈물 바다를 이룬다. 자기의 상처, 고통을 고백하는 것에서, 기만을 용서하는 것에서, 함께 살 궁리를 찾으면서 새로운 대본이 쓰여지기 시작한 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아모스 5, 14-15, 21-24).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언어를 찾아야 할 때다.

²¹ 이상직, 김이선, 권현지, 2018.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남녀 대졸자 노동이력으로 본 위기 전후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경제와 사회 118.

사라지고 있는 세상과 삶



폐허 속에 태어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과 삶



거대변화로서 새로운 사회, 삶, 주체

현재 사회, 삶, 주체	새로운 사회, 삶, 주체
발전/능력	상생/협동/연대
계층화	탈계층화
성별화	탈성별화
위계적 성원권	포용적 성원권
역진적, 잔여적 국가복지	보편적 국가복지
한줄 세우기	다양성
자원과 기회의 독점	자원과 기회의 균형적 분배
경쟁/성공/생산성 중심의 삶	진정한 관계 수행
노동/여가/교육/돌봄 분리	노동/여가/돌봄/교육 균형과 통합
분화/매뉴얼/규칙	경계넘기/관계하기
	미시, 생활세계, 지역, 거시제도로의 혁신의 확대

47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운영포럼단 의견서

■ 이선미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1. 저출산/저출생 고령화사회 중장기 정책 비전

- 인구정책의 역사적 경로의존성, 현실의 모순을 고려하되,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디자인하려는 창의성이 중요한 시점. 학문적 연구들은 전자에 일방적으로 집중해 있음(원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미래상을 다루는 경우는 젠더, 교육, 노동, 복지 등으로 이미 구획 지어진 정책 분야에 따라 각 분야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음. 각 미래상들 간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 그 결과 정책 분야간 조화를 고려한 통합적 미래상이 결여.
- 박경숙, 김기봉, 배은경 등의 발표는 인구정책이 국가/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함. 전적으로 동의함.
- 또한 단선적 생애주기 중심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김희삼의 통찰에도 동의함.

● 제안: ‘배움 - 생산 중심 일(노동)* - 관계 중심 일(돌봄) - 여가/쉼’의 통합과 균형 by 세대별/개인별 → 삶 형태의 다양성 증진. 4가지 요소의 비율에 따라 세대별 다양한 삶의 형태를 유형화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듯.

* 노동, 돌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산적 노동, 재생산 돌봄이라는 고정관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상을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음. 생산 중심 일은 paid work를 의미한다면, 관계 중심 일은 unpaid work로서 가족/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이상적 시민상으로 제시하는 보편적 돌봄 모델로서의 시민권 개념을 반영. 가족 돌봄을 넘어서는 지역사회봉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자원봉사계에서는 타임뱅크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2. 제도적 과제들: 부처 경계를 넘는 혼합 시도가 필요

2-1. 원칙: 흐름을 막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관리된 흐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고도의 복잡성, 개인화 등의 사회변동 배경 속에서, 정부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것.

2-2. 개인 차원에서 ‘배움 - 노동 - 돌봄 - 여가/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차원의 개입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을 듯.

2-2-1. 삶의 공간 개선: 핵심 추진 주체-정부/ 핵심 원칙 -지역균형

- 보편적 접근: 지역마다 배움-일-여가의 통합이 용이한 주거환경, 생활환경 조성
- 맞춤형 접근: 젊은 세대의 다양한 삶의 형태(1인가구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공유형 공간;; 2-3인 가족이 아이를 중심의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족 중심 공간 등)를 고려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과 재택근무 확산에 대비하여, ‘도시-농촌 반반씩 살기’ 지원

2-2-2. 소득 안정: 핵심 추진 주체: 정부, 시장/ 핵심 원칙 - 포용성

-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듯. 다만 고용 부문의 시급한 과제는 임금 연공서열제 문제

(남재량 발표 중: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개선. 종신고용제 전통이 깨지고 빈번한 직장 이동이라는 환경 속에서, (근속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상-후 하-박의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 이에 맞춰 청년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혁신이 따라야 함.

- 4차산업혁명 시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일-여가의 근대적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균형이 도래. 이에 따라,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일자리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기본소득제 논의 심화되어야 함.

- 디지털 뉴딜과의 연계성 고려 필요: ex. 스마트 마을 사업? 지금은 고급 아파트 단위로 스마트 시설들이 설치되어 일종의 gated community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비아파트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필요. 미국에서는 마을이 만들어지면 그 핵심에 교회가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마을이 만들어지면 그 핵심이 학교가 있었음. 이런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마을’에서는 돌봄과 배움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가 핵심이 되면 좋겠음.

2-2-3. 관계 촉진: 핵심 추진 주체: 시민사회, 정부

- 핵심 원칙: 세대/젠더/도농/성원권 기반의 문화적/권력 불균형에 대한 대응
- 그린 뉴딜과의 연계성 고려
- 도시-농촌 반반씩 살기와 탈지역 돌봄 공동체 시도 필요할 듯. 이를 위해선 김정섭 발표에서 나온 탑-다운식 전문가 제도(근대 자격증제도)의 한계를 벗을 수 있어야 함. 또한 과거 통반장과 같은 지역사회 코디테이션 기능을 가진 지역공동체 돌봄의 핵심 기관이 필요할 듯(ex. 돌봄/배움 중심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통반장?: 현재 돌봄센터는 돌봄의 수행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벗어나서 지역 사회 전체의 다양한 돌봄 관련 기관/제도들을 이해하고 도시와 농촌에 걸쳐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젊은 부모들의 욕구를 사회 전체 자원과 매칭하고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콘트롤 position. 이를 일자리로 만들 것)
- 결국은 도시와 농촌,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남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체험형 프로그램(episodic volunteering)을 많이 만들되, 행정 단위로서의 지역을 넘어서 cross-local community가 함께 키우는 돌봄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탑-다운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음.

● 요약: 관계 기여형, cross-local community라는 새로운 삶의 공간_그린 뉴딜/디지털 뉴딜과의 연계성

- 경쟁교육에서 연대교육으로 전환. 이를 위한 대학 평준화

- 미래 인재상인 창의·융합형 인간(bricolage) 육성. 역량(competence) 제고에서 역량(competency)¹⁾ 제고로

희망·상상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 주도성 미래교육

○ 노동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및 고임금자 임금 동결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일 생활 양립 환경 조성(예, 최고 근로시간 vs OECD 평균 미달 수업시간, 성평등 직장 문화 등)

-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단행. 기존 호봉제에서 (생활급+직무급+성과급) 체계로 개편

○ 복지

- 돌봄의 사회화: 아동수당 금액 및 연령 확대, 방과후 교실 내실화 등

-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미스매칭 해결(예, 정년과 연금수급시기). 역진적 소득보장체계 개선(정규직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 현재는 앞칸(특수직무연금수급자)중간칸(국민연금수급자)뒤칸(초연금수급자)으로 구분된 설비와 유사. 이러한 체계로서는 사회통합 불가능

○ 삶의 공간

- 강력한 제2차 지방균형발전 추진으로 집값 안정화

-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의 생활여건 맞춤형 거주지원 정책 강화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케어 등

1) 역량 빙산모델(Iceberg Model of Competency)에 의하면 역량의 20% 정도인 지식, 기능 등의 역량(competence)보다는 80%를 차지하는 자아, 속성, 동기 등의 역량(competency)이 더 중요

■ 남재량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방향

○ 급속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

- 새로 65세로 되는 인구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858만명
- 이들을 포함한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기존의 정책 테두리에서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
- 고령화에 따른 특징들을 찾아내고 이에 걸맞은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필요

○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고용을 통한 복지’

- 은퇴 후 소득 절벽(crevasse)은 노인빈곤과 고독사 등 고령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의 주요 원인
- 은퇴 이전의 만연한 고용불안은 노후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 ▶ 법적 정년은 60세 이상이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세에 불과하며, 이 연령이 더욱 하락하고 있는 추세(단, 2019년은 0.3세 증가)
 - ▶ 주된 일자리 이탈자들의 극심한 고용불안과 소득급감
 - ▶ 이에 따라 노후준비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고용을 통한 복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일을 통한 노후준비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기’와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가 요구됨

-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
 - ▶ 현재 노동시장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임금피크제의 급격한 확산 등)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발굴 필요
-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 자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발굴 필요 (예컨대 건강 문제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유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필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유인 제공 등)

○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 지원 강화

■ 김기봉 교수 (경기대학교 사학과)

1. 국가와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나 목표에 대한 제언

저출생/고령화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노멀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모든 세대 국민이 안녕하고 행복한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비전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제안합니다.

2. 제도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맞춘 인구정책의 과제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첫 번째 콜로키움 발표에서 제안한 인구 ‘온톨로지’ 구축이 ‘디지털 뉴딜’과 연관된다면, 저출산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는 인구정책의 생태적 관점의 전환은 ‘그린 뉴딜’과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인구 온톨로지는 ‘디지털 뉴딜’의 토대를 이루는 ‘데이터 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2 가지 국가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다른 몇 가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면, 기존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전환하면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문제를 초연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는 감염병의 방역과 범죄 예방에도 유용하며 고령자를 위한 재택근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인구감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스마트 농촌’으로의 전환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의 교육과 교통의 문제도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폐교를 디지털 원격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 마침내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온다면 농촌의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인구의 교통과 이동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마침내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해서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농촌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에서는 농촌 인구의 감소를 통한 지방의 소멸과 수도권 인구의 과밀화 및 주택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초저출산이 초래하는 인구절벽부터 완화시키는 것이 인구정책의 일차적 과제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염려하는 인구 문제는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위기 현상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출생/고령화의 인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과 이와 연관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발판으로 삼아 종래의 추격형 국가에서 탈피하여 선도형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교육, 노동, 복지 등의 분야에서 인구정책의 세부과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차에 걸친 콜로키움 발표에 대한 의견과 5회 콜로키움에 대해 제언:

각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매우 수준 높은 강의들을 들었고 실증적 연구 성과를 배우는 보람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분석과 진단은 훌륭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빈곤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생과 관련한 현

재 우리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성과는 막연하고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회과학적 분석은 풍성했지만, 인문학적 통찰은 빈곤했다는 것이 저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비록 그런 비판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 학문분야 일반이 처한 딜레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지가 있을 때 통찰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 콜로키움 발표를 인문학자들이 주도했다면, 통찰은 물론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런 자기반성을 통해 마지막 5회 콜로키움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번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해보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발전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포스트코로나 문명 전환에 부응하는 future-proof형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 김종백 교수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1. 저출산/저출생 고령화사회 중장기 정책 비전

육아가 행복한 국가, 육아를 함께하는 국가

2. 필요한 제도적 과제

- 육아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 (가령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인건비의 일부 보조)
- 도심 내 공공 육아시설 마련해 사내 보육시설이 없는 대상 지원
- 지역, 커뮤니티 공동 보육 공동체 구성 및 지원
- 공적연금 부과시 자녀 육아 비용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 (자녀 육아시 공제)
-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뺄기 (일단 원하는 개인부터 실시), 중고 6년 체제 1년 감소 (일정 수준의 시험 통과시 가능) 등을 통해 사회진출 연령 조기화

■ 최윤경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 비전

[VISION]

일생활균형과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사람중심·자연존중 사회

핵심 가치

삶의 질(행복), 성평등(형평성, 공동의 참여), 미래(지속가능, 환경, 안전)

2. 기본방향과 과제

1) 일생활 균형

- 일-생활-여가/문화-건강/안전이 보장되는 삶
- (전 생애주기) 놀이-학습-노동-주거-돌봄의 기본권 보장

2) 국민행복

- 참여하는 삶, 공평한 삶
- 다양한 삶에 대한 존중

3) 사람중심

- 폭력과 학대가 없는 사회
- 지역사회 공동체의 회복

4) 자연존중, 환경보존

-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물려주기
- 생명존중

3. 비전과 핵심가치/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분야별 과제(안)

1) 일생활 균형

1-1. 일-생활-여가/문화-건강/안전이 보장되는 삶

- 경제정책-사회정책-교육정책의 연계성 확대
 - 경제·산업정책과 육아정책, 청년정책, 사회정책의 연계
-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회적 연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환기적 적응 전략 마련 (transition 전략)」 마련
 -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적정노동시간/안전한일자리기준 보장

1-2. 놀이-학습-노동-주거-돌봄의 기본권 보장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체제 및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전방위 접근성 확대
 -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력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 전 생애주기 기본권으로서의 패키지
 - 영아기: 돌봄 위주의 아동권 보장
 - 유아기: 놀이 위주의 교육·보육권 보장
 - 학령기: 학습-놀이-여가의 교육·문화권 보장
 - 청년기: 노동권과 주거의 권리 보장
 - 중년기: 노동권과 돌봄권의 균형 보장
 - 장년기: 학습권, 건강권의 보장
 - 노년기: 돌봄권, 건강권의 보장

2) 국민행복

2-1. 참여하는 삶, 공평한 삶

- 교육과 노동, 돌봄의 기회(권리)와 참여(의무)를 공유하는 성 평등 구현
- 사회경제적 제 격차의 완화 - 순환과 분배의 동력 확대

2-2. 다양한 삶에 대한 존중

- 차이에 대한 존중,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인정과 지원
- 세계시민의식과 다문화 포용성 증진
- Well-growing, Well-dying의 환경 구축

3) 사람중심

3-1. 폭력과 학대가 없는 사회

- 아동학대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이 없는 지역사회
 - 신고자/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No tolerance)
- 지역사회 지킴 활동 강화: 학대·폭력의 예방과 모니터링 강화

3-2. 지역사회 공동체의 회복

: 정보/지식의 공유와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 지역사회 의사결정의 참여와 소통의 확대

- 다양한 주체 국민참여 확대(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 취약계층, LGBT 등)
- 지역사회 경제적·문화적 성과 공유 확대
- 지역사회 공동체(마을)의 물리적·심리적 회복

4) 자연존중, 환경보존

4-1.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물려주기

- 깨끗한 자연환경 회복과 유지를 위한 사회정책
- 친환경 녹색실천을 통한 자연과 사람의 안전·건강 증진

4-2. 생명존중

- 사람-동물-자연의 생명 존중
- 지구촌 환경 보존